“소설이란 우리가 사는 사회를 깨우쳐가는 과정”

광주 출신 최유안 첫 소설집 ‘보통 맛’ 출간
“언젠간 광주에 대한 소설 쓰고 싶어”
2018년 중앙 일간지 신춘문예 등단

전남대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이후 서울 명문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지금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다. 201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 ‘내가 만든 사례에 대하여’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광주 출신 소설가 최유안의 이력이다.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의 걸어갈 길이 보인다고 한다. 최유안 작가는 흔히 말하는 커리어우먼이다. 전문직과 작가라는 두 타이틀을 쥐고 ‘주경야작’(晝耕夜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번에 최 작가가 첫 창작집 ‘보통 맛’(민음사)을 펴냈다. 작가의 직장이 세종시에 있는 관계로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소설집에 담긴 이야기들은 전반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고민이 서로 맞닿는 지점을 짚고 있어요. 난민, 불법 촬영물, 자본주의 같은 묵직하고 큰 사회 문제도 있고 임신, 육아, 회사 생활 같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도 다뤘습니다. 또한 가족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도 담았구요.”

이번 창작집은 등단 후 3년 동안 발표한 중·단편 작품을 묶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은 자주 실패를 경험한다. 작가에 따르면 취업에 성공한 인물도, 투자에 큰 돈을 번 사람도 실패의 끝 맛을 느낀다. “어떤 것의 성공에는 다른 것의 실패가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말이 선문답처럼 들렸다.

소설은 인간의 다양한 삶을 이야기하는 장르다. 그 삶 속에는 대부분 실패와 좌절, 고통과 번민, 상처와 같은 모티브들이 침잠돼 있다. 그것들이 의미있는 서사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과 ‘부딪힘’을 전제로 한다.

최 작가는 대학에서 독어교수법, 경영학을 공부했다. 독일로 유학을 떠나서는 다시 경영학을 공부하며 방송국에서 기술통역을 했다. 한국에 들어와 국제지역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박사 과정은 유럽지역학을 전공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유럽 지역 연구 등을 맡고 있다. 얼핏 문학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실은 제 안에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한다.

최 작가는 성실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듯했다. 이 질적인 세계를 조합해 소설로 형상화내는 솜씨는 재능 이상의 자질을 요구한다. 그것은 아마도 문학에 대한 진정성, 어떤 일이 있어도 작가의 삶을 살겠다, 라는 결기에서 비롯된 것일 터다.

“신춘문예 당선 통보를 받던 날 광주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무언가 궁금해도 저를 배려해 뭘 묻는 성격이 아닌데, 그날 처음으로 물으셨어요. ‘소설이 너에게 뭐야?’ 그때 제가 어머니께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소설가로 죽고 싶다고요.’ 다른 타이틀은 죽을 때 없어도 되는데, 작가의 타이틀은 그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는데 그 눈이 보드랍고 쓸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작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다. 다행히 10년 정도 직장과 글을 병행한 덕분인지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진 것 같다”고 한다. 그는 매일 퇴근해 두 세 시간 정도는 글을 쓰고, 주말에도 6시간 정도는 글을 쓴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 매일 아침 꼭 요가를 하고 집이 있는 13층까지 걸어서 올라간다”며 웃었다.

이번 작품 속 인물들은 뭐든 잘해보고 싶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회사 동료로서도, 자기 자신에게도, 나아가 사회적 존재로서 도움이 되고 싶은 존재들이다. 8편의 단편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인의 역할과 책무를 소설적으로 풀어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신을 잃지 않으며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작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인물과 상황을 주시한다.

타지에 있다 보니 고향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 “무등산을 형상화한 LED 화면에서 나오는 빛을 받으며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안녕, 내 고향.’ 말하면서 혼자 인사를 하기도 하지요.”

성장통을 겪던 시절엔 광주를 벗어나고 싶었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광주를 떠난 지 십수년이 돼서 그런지 “누군가 광주를 설명해달라고 하면 뭉클해진다”는 것이다.

“광주에 대한 소설도 언젠가 꼭 써보고 싶습니다. 동료 작가들이 80년의 광주를 다루는 걸 보면서도, 저에게는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광주는 제 안에 있고, 언제든 발화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작가는 인생에서 배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소설가는 내면으로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 “소설이란 부단히 나와 내가 사는 사회를 깨우쳐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계속해서 작품을 읽고 쓰며 내공을 쌓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민주·인권·평화 공유… ‘인문도시’ 강좌 열린다

인문지행, 16일부터 전일빌딩245 등

광주 인문정신, 동서양 고전 인문학, 광주 인문학 대다, 심리예술치유 …

일반시민, 취업 중비 중인 청년, 소외계층 등 다양한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1무등인문도시’ 인문강좌가 오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일빌딩245 등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사)인문지행이 주최하며 광주시 후원으로 진행된다. 민주, 인권, 평화 가치를 공유하고 인문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인문학적 경험의 장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인문강좌는 모두 35개의 세부 강의로 구성돼 있다.

섹션 1 ‘광주의 인문정신’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담론의 장을 제공한다. 강사진은 심옥숙(사단법인 인문지행 대표), 황광우(사단법인 동고송 대표), 황풍년(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상봉(전남대 교수), 천득염(호남학진흥원 원장), 이동순(조선대 교수) 등으로 이루어진다.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전일빌딩245)

섹션2 ‘동서양 고전 인문학’에서는 서양 정신을 대표하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명제에서 출발한다. 서양 고전 인문강좌 3회와 동양 고전 인문강좌 3회, 총 6회로 구성되며, 양진호(인문학교육연구소 대표)와 이향준(전남대 학술연구교수)이 강사로 나선다.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무등도서관)

각양각색의 인문학적 시선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섹션 3 ‘광주의 유쾌한 인문학 대담’은 여행과 철학, 다큐영화의 세계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5회의 강좌 강사진은 이강서(전남대 교수), 김경자(다큐영화 감독), 이정옥(시가문학해설연구원장), 성진기(전남대 명예교수), 김민지(바이올리니스트) 등으로 꾸려진다.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

마지막 섹션4 ‘NEET정년 예술치유 인문학’은 국내외의 대표 영화를 함께 감상하고 대화를 진행한다. 강사는 심리상담사 김미경과 박현옥이다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자비신행회)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다음 포털 에서 ‘사단법인 인문지행’을 검색해 홈페이지를 통해 각 섹션별로 마감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 무료. 문의 062-229-068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채민

박하은

청소년 협주곡의 밤

광주여성필, 2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이하 광주여성필) 제 59회 기획연주회 ‘협주곡의 밤’이 오는 20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악기를 전공하는 청소년들에게 무대 경험을 쌓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은 정병휘(서울대 음악대학 외래교수) 지휘자를 초청,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다양한 악기의 협연무대로 꾸며진다.

공연 프로그램은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 11번’, ‘첼로 협주곡 1번’,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플루트 협주곡 1번’,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64번’,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지오소 28번’,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104번’,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등이다.

무대에는 피아노 이류경·장호, 바이올린 김도은·위서연·와베미나, 첼로 이다인·임채민·박하은, 플루트 김민지 등이 오른다.

광주여성필 다음 공연은 오는 9월 예정된 ‘문학이 들리는 콘서트’로 차이코프스키와 리스트의 곡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광주여성체임버앙상블’에서 출발한 광주여성필은 1999년 5월 창단한 이후 지금까지 480여회의 공연을 진행했다.

금노상, 최선용, 카를로 팔레스키 등 30여명의 지휘자와 피아니스트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배은환 등이 협연자로 참여했다. 전석 초대. 문의 010-3421-391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장흥문화원, 청태전 강연·체험 사업

청태전은 우리민족이 즐겨왔던 고유발효차 일종으로 삼국시대부터 근세까지 장흥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전통발효차다. 세계녹차콘테스트 최고 금상을 비롯해 국내외 다수 차 품평대회에서 각종 상을 수상했으며 국제슬로푸드 생명다양성 재단이 인증한 맛의 방주에 등재되기도 했다.

장흥문화원(원장 고영천)이 (재)한국문화재재단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사업에서 ‘장흥지역의 전통 발효 떡차인 청태전(돈차)의 인문학적 고찰, 계승과 복원 제다 연구’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사업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의 무형문화재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며 이번 ‘청태전’ 관련 사업은 ‘청태전보존연구회’와 함께 청태전(돈차)을 주제로 강연과 현장 답사, 체험 위주로 진행된다.

한편 5월부터 진행된 ‘청태전 ’ 관련 강의는 오는 9월까지 ‘천태전차의 다례’, ‘천채전차의 인문학적 고찰’ 등 이론과 체험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